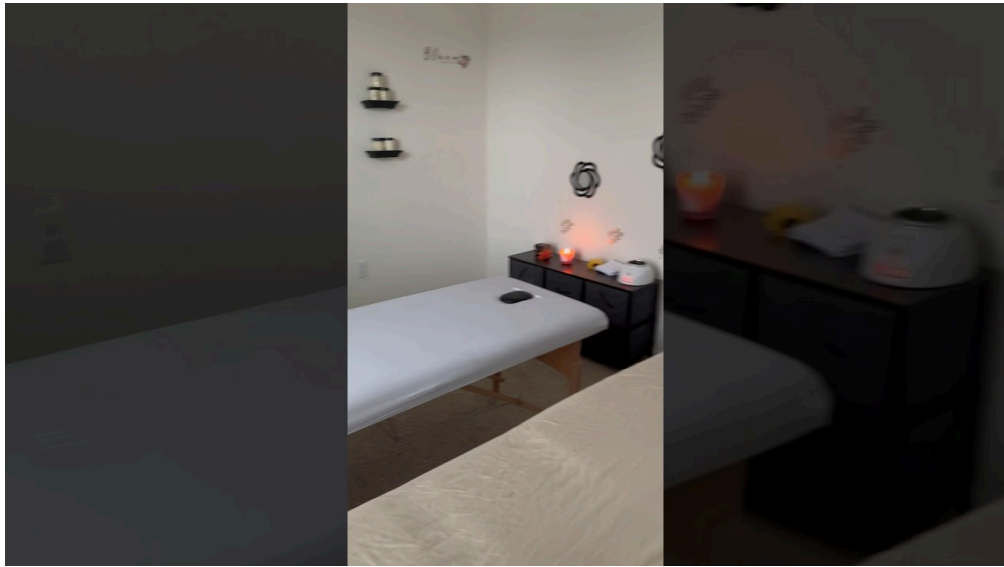


대구는 경부축 한복판에 자리 잡은 도시라서 철도, 고속도로, 항공이 촘촘히 물린다. 그래서인지 같은 목적지라도 이동 선택지에 따라 체감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출장을 여러 번 다니며 얻은 결론은 단순히 가장 빠른 수단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방문 일정의 리듬과 동선, 회의 성격에 맞춰 수단을 섞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전 첫 미팅인지,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지, 하루에 몇 곳을 도는지에 따라 최적의 답이 달라진다. 아래 내용은 대구를 자주 오가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을 아끼고 변수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언제 KTX가 답이 되는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KTX는 1시간 50분 안팎, SRT는 환승을 고려하면 체감상 비슷하거나 약간 더 걸린다. 중요한 건 도착 역의 위치다. 회의 장소가 동대구역에서 차로 15분 이내라면 KTX가 거의 항상 유리하다. 동대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모두 연결되고,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붙어 있어 환승 효율이 높다. 아침 7시대 KTX를 타면 9시 전후로 동대구역에 내릴 수 있고, 역 주변 카페가 일찍 문을 여니 리허설 시간 확보도 쉽다.

동대구역에서 택시 수급이 나쁘지 [대구 아로마](#) 않지만,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엔 대기열이 늘어지기도 한다. 이 시간대엔 지하철이 더 빠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성구 범어, 만촌 일대라면 2호선 한 정거장 또는 두 정거장 거리다. 달서구나 성서산단처럼 서쪽으로 길게 들어가는 일정이면, 동대구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두류, 감삼, 용산 방향으로 25분에서 40분을 잡는 편이 택시보다 예측 가능하다.

회의가 오후 늦게 끝나고 바로 서울로 복귀해야 한다면, 19시 전후 KTX 상행 혼잡을 의식해야 한다. 금요일은 특히 서서 가는 승객이 생길 정도라, 최소 전날 유연석 지정석을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하다. 모바일 특가가 풀리는 시점이 유동적이라도, 이 시간대만큼은 정가라도 좌석을 먼저 잡고 나중에 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면 변경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낮춘다.

대구공항의 장단과 공항 접근 동선

항공편을 쓰는 경우는 주로 제주, 김포, 광주나 사천에서 올라올 때다. 대구공항은 규모가 작아 보안검색부터 탑승까지 20분 내외로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황금시간 편수는 계절과 요일에 따라 크게 변한다. 공항에서도 심 접근은 선택에 따라 체감이 확 갈린다.

공항철도는 없지만, 동대구역과 공항을 잇는 지하철 1호선 + 2호선 환승 조합이 무난하다. 다만 캐리어를 끌고 이동한다면, 동대구역과 공항역 사이의 수직 이동 동선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택시는 혼잡을 피해 북편 진입로를 활용하면 동대구역까지 15분에서 25분, 남편으로 들어오면 5분 정도 더 잡아야 할 때가 있다.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 공항과 검단동 교차로 일대 신호 체계가 길게 느껴지니 항공 연결 일정이면 최소 10분 버퍼를 붙인다.

제주에서 첫 비행으로 들어오는 일정은 9시 미팅 기준 촉박하다. 짐을 부치지 않는 조건에서 7시대 이륙, 8시대 착륙을 잡아도 활주로 상황과 랜딩 후 게이트 배정에 따라 10분에서 20분씩 밀리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럴 땐 공항에서 바로 북구나 동구 일정을 잡고, 수성구나 달서구는 오후로 넘기는 편이 안전하다.

시내 이동의 핵심 축, 지하철과 버스

대구 지하철은 3개 노선이지만, 업무 동선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건 1호선과 2호선이다. 3호선은 모노레일이라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수성구 북부와 칠곡 방면 이동에 가끔 위력을 발휘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서울에 비하면 낫지만, 두 정거장 정도는 서서 가는 걸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정시성이 중요할수록 지하철 비중을 높이는 게 낫다. 대구는 특정 교차로에서 한 번 발목 잡히면 10분, 15분이 금방 지나는 편이다. 반면 지하철은 역과 목적지 사이 도보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지하철 환승보다 택시를 섞어 쓰는 게 피로도가 낮다. 예를 들어 동대구역에서 대구은행역까지 2호선을 타고, 역에서 800미터 남짓 걷는 대신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짧은 택시를 붙이면 비를 맞는 시간이 줄어든다.

버스는 노선이 촘촘하고, 전용차로가 있는 구간에서는 택시보다 빠를 때가 있다. 다만 외지인이 처음부터 버스를 주력으로 삼으면, 정류장 위치와 진입 방향 때문에 헛갈리기 쉽다. 출장 첫날에는 지하철 위주로 동선을 잡고, 둘째 날부터 정류장 감이 잡히면 버스를 섞는 방식이 무난하다.

택시 활용의 요령과 지역별 체감

대구 택시는 기사 수급이 일정치 않아, 비 소나기나 야구 경기 종료 시각에 호출이 몰리면 배차 거절이 줄줄이 뜬다. 콜이 막힐 때는 역전, 범어네거리, 반월당 같은 승차거점으로 5분이라도 이동하는 편이 유리하다. 특히 반월당은 1호선과 2호선 환승 인파 덕분에 빈 택시 회전이 빠르다.

수성구는 골목 진입과 회차가 까다로운 구간이 있는데, 강변도로로 바로 붙을 수 있는 건물이라면 2분에서 3분 차이로 도착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목적지 주변 골목을 뺑뺑이 도는 상황을 줄이려면, 내릴 지점의 이면 도로를 지도에서 미리 짚어두고 기사님께 안내하는 게 낫다. 반대로 달서구 성서공단은 거리가 길어도 도로가 단순해 예측성이 좋다. 다만 오후 5시 30분 이후 공단 퇴근 물결이 시작되면 성서IC 주변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

심야 귀가가 22시 이후라면, 동대구역이나 서대구역 쪽이 택시 수급에 유리하다. 반월당에서 밤 11시 이후 앱 호출을 해보면 3분 거리 차량도 배차 취소를 반복할 때가 있다. 이런 날은 반월당에서 한 정거장 이동해 버스전용 차로 쪽으로 이동하니 바로 잡히곤 했다. 체감상 금요일 밤과 비 오는 날은 여유 시간을 15분 더 잡아야 한다.

일정 설계의 기준점, 회의 성격과 이동 피로

출장에서 교통 최적화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다. 첫 미팅이 프레젠테이션인지, 현장 점검인지, 단순 미팅인지에 따라 이동 수단 선택이 달라진다. 발표가 있는 날에는 지하철로 이동해 땀을 식히고 호흡을 고르는 시간이 유리하다. 현장 점검처럼 장비를 들고 가는 일정이면, 엘리베이터 접근성이 좋은 출구를 가진 역을 고르는 편이 낫다. 동대구역 2호선 승강장은 환승 동선이 길다 보니 장비를 들고 이동하면 첫 회의 전에 이미 체력이 빠질 수 있다.

점심시간에는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 대구는 인기 식당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편인데, 줄 서는 시간을 포함하면 1시간 30분이 금방 지나간다. 미팅 장소에서 300미터 안쪽 식당을 잡고, 오후 이동을 지하철로 전환하면 점심 이후의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카페를 이동 중간에 끼워 넣기보다, 회의장 도착 직전에 들르는 방식이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의가 이어지는 날에는 중간에 현금 결제나 영수증 분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교통카드와 간편결제를 정리해 둔다. 대구 시내 택시는 대부분 카드 결제가 매끄럽지만, 가끔 결제 단말기의 통신 지연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 촉박한 이동이라면 하차 직후 결제를 할 수 없으니, 탑승 중간에 기사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목적지 직전에 단말기를 켜 달라고 부탁하면 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서대구역을 쓸 때 이득과 주의점

서대구역은 KTX 정차가 늘면서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달서구, 서구, 성서산단 방문이 주 일정이면, 동대구 대신 서대구로 들어가 첫 이동 시간을 15분 이상 줄일 수 있다. 다만 역세권 상업 시설이 아직 동대구만큼 탄탄하지 않

아, 회의 전 대기 장소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다. 역 북측보다 남측 출구 쪽이 택시 회전이 더 빠른 편이고, 버스 노선도 남측이 다양하다.

주의할 점은 상행 열차의 운행 간격이다. 퇴근 시간 이후 서대구 출발 상행은 선택지가 적고, 동대구에서의 환승이 더 안정적일 때가 있다. 일정 막판이 유동적이라면 서대구에서 동대구까지 택시 또는 3호선과 버스를 조합해 20분에서 30분 안에 이동하는 플랜 B를 마련해 두면 심리적 여유가 생긴다.

렌터카가 효율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대구 시내만 돈다면 렌터카가 꼭 필요하진 않다. 주차 공간이 여유롭고 도로 폭이 넓은 편이지만, 불필요한 주차 스트레스가 생긴다. 반면 대구 외곽 공단, 경산, 칠곡, 성주 같은 위성 도시까지 하루에 3곳 이상 돈다면 렌터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동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경우도 경험했다.

다만 초행길이라면 고속도로 진출입에서 네비게이션 지시가 빠르게 바뀌는 구간이 있다. 특히 서대구IC, 성서IC는 차로 변경 타이밍을 놓치면 회차에 10분을 더 쓰게 된다. 이럴 땐 고속도로 진입 직전 잠깐 갓길 휴게 구역이나 인근 주차장에 세우고 경로를 다시 정리하는 게 낫다. 전기차를 빌린다면, 성서산단과 동대구역 인근 급속 충전기 밀도가 괜찮은 편이지만, 점심시간에 대기 줄이 생긴다. 충전을 저녁 미팅 후로 미루면 20분 안에 마무리된다.

비 오는 날, 시간표가 무너지는 패턴과 대응

대구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자주 오고, 우천 시엔 신호 주기가 체감상 길어진다. 택시는 수요가 급증하고 버스 역시 승하차 시간이 늘어나며 지연이 누적된다. 이럴 때는 지하철 환승이 최우선이다. 우산을 쓰고 장거리를 걷는 대신, 지하 연결 통로가 있는 역 출구를 고르는 게 실용적이다. 예를 들어 반월당은 지하상가로 연결된 출구가 많아 빗길 이동에 유리하다.

비 오는 날의 핵심은 여유 시간 15분을 전체 일정에 도포하듯 바르는 것, 그리고 이동 2회마다 따뜻한 실내에서 5분 쉬어 체온을 회복하는 것. 젖은 옷으로 냉방된 회의실에 들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목소리도 쉽게 잠긴다. 발표가 있다면 여벌 셔츠를 작은 압축팩에 넣어 가방에 두는 게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든다.

도시철도 출구 선택의 디테일

대구 지하철 출구는 블록 단위로 배치돼 있어, 같은 역이라도 출구 선택이 이동 체감에 큰 영향을 준다. 동대구역은 지상, 지하, 환승 통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처음 오면 동선이 길게 느껴진다. 역내에서 2호선으로 갈아탈 때는 중앙광장 쪽보다 동편 통로가 덜 붐빈다. 반월당역에서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줄이 길면 반대편 육교를 건너는 게 빠를 때가 많다.

수성구청역은 업무 밀집 빌딩과 가까운 출구가 나뉜다. 고산, 범어 쪽 미팅이면 1번이나 2번 출구를, 들안길 쪽 식당이라면 4번 출구가 동선이 짧다. 이런 출구 선택은 택시를 타더라도 중요하다. 기사님이 내비에 찍은 공식 주소와 실제 건물 주차 진입로가 다르면 돌아 들어가느라 시간을 잃는다. 초행 빌딩이면 미리 입차 동선을 확인해 출구 번호나 골목 이름을 전달한다.

요일과 시간대별 교통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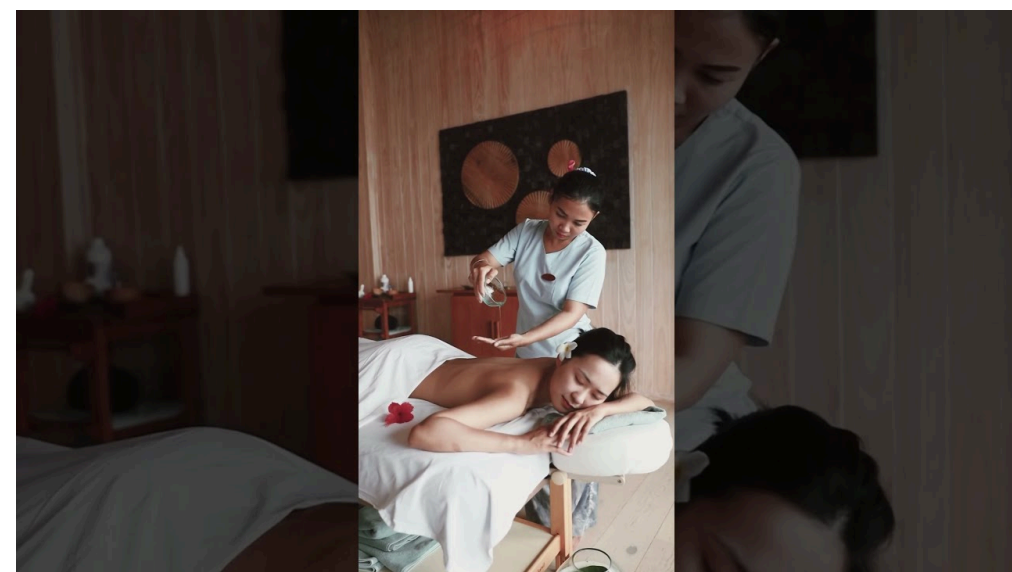
월요일 오전은 차분하지만, 수요일 오후부터 회식과 행사 일정이 늘며 택시 호출이 묵직해진다.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성서산단과 동대구역 주변 정체가 뚜렷하다. 반면 화요일 오전 9시대는 정시성이 좋아 미팅을 촘촘히 배치하기 좋다. 토요일 오전은 도심 도로가 비어 있어 현장 점검이나 사진 촬영 일정에 최적적이고, 일요일 저녁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만 혼잡하다.

시험 시즌에는 동성로 일대 버스승강장에 학생 유동이 늘어, 버스 정차 시간이 길어진다. 이 시기에는 동성로 인근 회의를 오전으로 배치하고, 오후 일정은 반월당 남측, 수성구청역 주변으로 옮기는 게 리스크가 낮다. 프로야구 홈경기가 있는 날은 사직로, 범어네거리 일대 택시 회전이 뒤틀린다. 경기 종료 30분 전부터 콜이 몰리니, 일정이 겹치면 아예 지하철로 피하는 게 답이다.

외지 팀 이동의 협업 팁

여럿이 함께 움직일 때는 리더가 전 구간을 끌고 가려 하기보다, 구간별 책임자를 나누는 편이 효율적이다. 동대구역 도착 후 첫 이동은 A가, 점심 이동은 B가, 오후 이동은 C가 앱 호출과 용차 지휘를 맡으면, 한 사람의 스마트폰에 모든 호출과 결제가 몰려 생기는 지연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법인카드 한 장으로 모든 택시를 결제하면 분할 정산 시간이 길어진다.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경비로 일괄 정리하는 체계를 미리 합의해 두면 귀환 후 회계 처리도 깔끔하다.

회의 전에 현지 파트너에게 역 출구와 택시 하차 지점을 물어보는 습관이 시간을 많이 [대구 마사지](#) 아껴 준다. 대구는 건물 명칭보다 학원, 병원 같은 랜드마크로 길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지도 링크를 요청하고, 링크에서 정확한 골목 진입을 확인한 뒤 우버 스타일의 메모 기능에 하차 포인트를 적어 두면 기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해진다.



가격과 비용 처리의 감각

대구 시내 기본 택시 요금은 수도권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지하철 + 도보 조합 대비 비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팀 단위로 움직일 때 2인씩 짝을 지어 택시 두 대를 나누는 전략이 좋다. 4인이 한 대를 타면 하차 지점이 두 곳 이상으로 갈리고, 회차 시간이 늘어난다. 반면 두 대로 쪼개면 각각 목적지 앞에서 내릴 수 있어 총 이동 시간이 줄고 회의 준비 여유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교통비 영수증은 택시는 앱 자동영수증으로 묶고, 지하철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월말에 출력하는 방식이 깔끔하다. 대구 시내 버스와 지하철은 환승 할인 체계가 적용되며, 환승 시간은 보통 30분 기준이지만, 분 단위는 계절과 정책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다. 촘촘한 환승이 예정돼 있다면 환승 시간을 넉넉히 잡고 현장에서 다시 확인한다.

지역별 동선 설계, 수성구와 달서구의 대비

수성구는 대로와 이면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범어네거리, 동대구로 교차로에서 병목이 생긴다. 그래서 2호선과 택시를 섞는 전략이 좋다. 반면 달서구는 단거리 이동이 택시로 깔끔하게 떨어진다.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애매한 공단지나 물류창고로 들어가는 일정을 묶어 오전에 처리하면, 오후엔 도심으로 돌아와 지하철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남구와 중구는 주차가 관건이다. 지상 주차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하 주차장은 진입로가 좁은 경우가 많아 렌터카를 몰기 부담스럽다. 이런 지역에서는 택시로 들어가고, 나올 때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를 택하는 편이 전체 속도를 높여 준다. 특히 중구 골목은 일방통행이 많아 초행 기사님과 함께 길을 헤매게 될 확률이 높다.



이해하면 무서운 대구

일정이 꼬였을 때의 복구 시나리오

불가피하게 미팅이 15분 이상 밀리면, 그다음 이동을 택시에서 지하철로, 혹은 그 반대로 즉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몸이 피곤할수록 눈앞 택시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럴 때가 더 많이 늦는다. 지도 앱에서 도착 예정 시간을 비교해 차이가 7분 이하면, 지하철로 들어 안정성을 가져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일정 전체를 살린다.

또 한 가지는 이동 중 전화 대응을 최소화하는 것. 지하 구간에서는 통화 품질이 떨어지고, 통화 집중하다가 환승역을 놓치기 쉽다. 통화가 불가피하면 택시 이동 구간에 몰아 놓되, 10분 이상 통화가 이어질 것 같으면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소음이 덜한 경로를 부탁드리면 상호 피로가 줄어든다.

실전 체크리스트

- 첫 미팅 장소 기준 도착 역을 선택한다. 동대구가 기본, 달서구·성서산단이면 서대구 고려.
- 9시 전후 도착이나 19시 이후 복귀라면 KTX 지정석을 미리 확보한다.
- 비 예보가 있으면 지하철 비중을 높이고, 출구 번호와 실내 연결 동선을 체크한다.
- 2곳 이상 외곽 일정을 묶는 날은 렌터카 또는 대절차를 검토한다.
- 택시 수급이 꼬이면 반월당, 동대구역, 범어네거리 같은 거점으로 이동해 리커버리한다.

하루 동선 사례, 시간과 체력의 균형

서울에서 7시 30분 KTX로 출발해 9시에 동대구역 도착. 역 2호선으로 갈아타 수성구청역 하차, 10시 미팅. 11시 30분 근처 식당에서 점심, 카페에서 20분 준비 후 13시 30분 달서구 이동. 이때 지하철로 가면 40분, 택시면 25분. 발표가 없는 오후 미팅이라 택시를 선택해 여유를 확보. 15시 30분 마치고 서대구역으로 이동해 16시 10분 상행 KTX로 복귀. 이 동선은 환승이 두 번, 택시가 두 번으로 균형을 맞춰 체력 소모가 적다. 비가 오는 날이라면 수성구청역 근처에서 택시를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지하철 환승을 피하고, 하차 지점을 건물 지하 진입로로 지정해 비 노출을 줄인다.

다른 날의 예시. 김포에서 대구공항으로 8시대 항공편, 9시 10분 도착. 공항에서 복구 현장으로 바로 택시 이동, 9시 40분 미팅 시작. 11시 서대구역 근처로 이동해 점심, 13시 성서산단 공장 방문. 이동 거리와 짐을 고려해 렌터카를 사전에 잡아두고, 서대구역 주차타워를 거점으로 사용. 16시 장비 반납 후 주유와 정산, 17시 30분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18시 10분 KTX 탑승. 항공기 지연 리스크가 있는 오전 일정임을 고려해 첫 미팅을 공항에서 30분 이내 지역으로 [대구 출장](#) 배치한 것이 포인트다.

마지막 손질, 작은 것들이 만드는 차이

휴대용 배터리는 대용량 하나보다 중용량 두 개가 낫다. 이동 중 두 사람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택시에서 내릴 때 케이블을 두고 내릴 위험도 줄어든다. 보조 우산은 가벼운 원터치보다 수동 슬림형이 공간 효율이 좋고, 지

하철 출구에서 접고 넣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신발은 가죽 구두 대신 하이브리드 로퍼를 추천한다. 반나절을 걸어도 발 피로가 덜하고, 계단이 많은 환승 구간에서 체감이 크다.

지도 앱은 한 가지만 쓰지 않는다. 지하철 정보는 현지 앱이 빠르고, 도로 소통은 대중적인 내비가 안정적이다. 둘의 예상 도착 시간이 벌어지면, 보수적으로 더 긴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동선의 10퍼센트를 비워 둔다. 대구는 기본 속도가 빠른 도시지만, 변수가 생기면 한 번에 크게 휘청인다. 이 여유가 일정의 완성도를 지킨다.

한 줄 정리, 도시의 리듬을 타면 시간이 남는다

대구 출장은 교통수단의 성능 싸움이 아니다. 어느 구역을 어떤 시간대에, 어떤 컨디션으로 통과하느냐의 문제다. 동대구와 서대구, 지하철과 택시, 렌터카와 도보를 목적과 상황에 맞게 엮으면, 하루에 세 곳, 네 곳을 돌아도 저녁에 남는 체력이 생긴다. 그 체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미팅의 질이 달라진다. 이동의 효율은 결국 일의 완성도로 돌아온다.